‘로봇수트’ 입고 험난한 순례길도 ‘거뜬’

“험난한 순례 여정 든든한 동반자 만났다”

일본 로봇수트 ‘워크 메이트’
불교 순례길 활용 실험 눈길

박정현 객원기자

‘험난한 비탈길’. 성지순례길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이미지다. 이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선뜻 성지순례에 나서기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로봇기능이 장착된 수트를 입고 험난한 순례길을 거뜬히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월 10일 “불교 순례자들이 이제 그들의 어려운 여정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났다”며 지난해 12월 13일, 가가와현(香川県)에서 첨단 로봇기능을 장착한 수트를 입고 시코쿠 순례길 중 72번째 순례길에 오른 불자들을 소개했다. 시코쿠 순례길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승려 구카이(空海, 774~835) 대사와 관련된 사찰 88곳을 순례하는 여정이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순례길에 오르는 것을 걱정했는데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었어요!”

60대 남편과 함께 불교 순례길을 걷는데 ‘로봇 수트’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아보는 실험에 참여한 50대 여성은 이같이 말하며 놀라워했다.

부부는 어깨와 허리에 모터 장치, 등에는 제어 장치가 장착된 수트를 입고 500m 비탈길에 올랐다. 머리에 쓴 전통 모자와 첨단 수트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두 사람은 로봇처럼 걸었다.

‘윙윙’ 소리와 함께 경사로를 쉽게 오른 남편도 “로봇수트 덕분에 숨이 차지도 않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었다”며 신기해했다.

이들의 순례 과정은 TV 프로그램으로도 방영됐다. 이들을 촬영한 담당PD는 아사히신문에 “마치 영화 ‘로보캅’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 같았다”며 감탄했다.

‘워크 메이트’(Walk Mate)라는 이 로봇수트는 도쿄첨단연구소(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했다. 2018년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물료치료용으로 사용됐지만, 실외용으로 실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랍 13일 로봇 수트를 입고 시코쿠 순례길에 나선 부부의 모습.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해당 수트를 개발한 도쿄첨단연구소의 요시히로 미야케(Yoshihiro Miyake) 교수는 “일반 사람의 평균 걷는 속도와 모습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팔 다리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며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로봇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동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추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사람들이 ‘워크 메이트’를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동일한 걸음 속도로 함께 여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험은 일본 민간항공사 ‘아나’(ANA: All Nippon Airways)에서 후원했다. 해당 회사는 ‘워크 메이트’를 순례길 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을 돕는 기술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日, 스님들이 듣는 황당한 질문들은?

SNS에 스님들 다양한 경험담 이어

“불교 인식 새로워지는 계기 되길”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의 생활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흔히 대중매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스님들의 모습으로 추측되곤 하는 출가자의 생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문이 화제다. 일본의 스님들이 SNS를 통해 공개한 황당한 질문과 상황을 1월 4일, 일본의 ‘마이도나 뉴스’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SNS인 트위터에 한 스님이 글을 남긴 것에서 시작됐다. 진언종 소속의 이와타 류세이 스님은 구랍 28일, “일전에 누군가에게 ‘스님인데 퇴마도 못하는 건가?’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이건 ‘메밀국수집인데 라면도 못 만드는 것인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며 5000회 이상 공유되었고 250회 이상 인용되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류세이 스님의 글을 인용한 한 스님은 “이런 질문은 흔하게 듣는 질문이다. 술이나 고기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은 이제 공기처럼 흘러가듯 대응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다른 스님은 “요즘은 질문도 발전했다. ‘스님이 SNS를 해도 되는가?’, ‘스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하는 질문들도 심심찮게 받는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도 스님의 글을 인용하면서“목사들도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어느 종교나 성직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제의 시작이 된 류세이스님의 원 트윗. 사진출처=마이도나 뉴스

류세이 스님은 “내 글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줄은 몰랐다.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출가자는 ‘령’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댓글과 인용글 덕에 좋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자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에 대해 “옛날 한창 심령방송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 종교인들이 출연하면서 ‘스님이면 퇴마를 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본래 퇴마라는 말이 없다. 그러나 부탁을 받으면 영가를 달래는 기도를 정성껏 올리는 것이 퇴마로 오해받는 것 받다”고 말했다.

현재 류세이 스님은 이번 일을 주제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들의 생활과 체험담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번 일로 스님과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 기자

泰, 새해벽두 고위 출가자들 음주파티 논란

스님 3인, 1월 1일에 음주 적발
“내 몸 통해 조상에 제물 전달”
황당 변명에 싸늘한 국민 여론

전통적으로 불교국가를 자부해 왔던 태국에서 최근 불교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를 비롯해 횡령 등의 스캔들로 얼룩지고 있는 태국 불교계에 새해부터 스님들이 음주파티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4일 태국의 ‘타이뉴스 크로스 봄버’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지난 1월 1일, 태국 북부 캄펭펫주의 경찰은 모 사원에서 지역 불교 지도자급 스님 3인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스님들이 모여 음주 파티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적발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 받은 내용보다 인원이 적었기에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현장에서 음주를 증거할 만한 주류는 발견 되지 않았으나 경내에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다”고 밝혔다. 테라와다 불교가 중심인 태국에서 출가자의 음주는 중대한 파계로 인식돼 현재 교계 안팎으로 규탄 받고 있는 문제다.


음주파티로 논란이 된 사찰을 조사 중인 모습. 사진출처=타이뉴스 크로스 봄버

체포된 스님들은 승가법 집행관들에게 심문을 받았다.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로 발견된 한 스님은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어지는 조사에서 결국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또 체포된 스님들 전원이 알코올 검사에서 명백히 음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음주의 이유에 대한 심문에서 발언한 변명이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된 스님은 “일반적으로 망자들을 위한 제사와 기도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새해를 맞아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조상들을 비롯해 인연이 되는 영가들을 위해 술을 마셨다. 우리의 몸을 통해 영가들에게 술을 전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이기에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승가법 집행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3인 전원에게 계율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멸빈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태국 불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한 불자는 “가뜩이나 젊은 층이 불교와 멀어지고 있고, 기존 불교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와중에 출가자들이 스스로 빌미를 만들고 있다”며 출가자들의 자질 저하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출재가가 모두 받아 지키는 기본 계율”이라며 “조상과 영가들을 위해 술을 마시고 축복했다는 변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 기자

中, ‘불상 강제 철거’ 소식 전한 스님 체포

‘드라고 마을’ 소재 30m 불상 철거

소식 외부 노출하자 체포 뒤 학대

중국 쓰촨성 지역 당국이 루훠현에 소재한 30m 높이의 불탑이 강제 철거된 사실을 외부에 노출한 혐의로 티베트 승려들을 체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월 10일 티베트 현지 정보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티베트족 자치주 간쯔(Kardze)의 드라고(Drago) 마을에 있는 불상이 지난 11월 너무 높게 세워졌다는 이유로 관료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티베인들이 자발적으로 4000만 위안(한화 약 75억 2080만원)을 모아 2015년 세운 것이다. 당시 쓰촨성 당국도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RFA는 “현지 스님들과 티베트인들은 그 철거 과정을 강제로 직접 목도해야 했다”며 “이는 티베트 특유의 고유문화와 종교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 압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드라고 마을 가덴 남갈링 수도원의 주지 펠가(Pelga) 스님 등 11명은 철거된 불상 사진을 외부에 노출했고, 쓰촨성 당국은 해당 스님들을 즉각 체포했다. 여기에 일반 티베트 시민 2명도 이들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쓰촨성 관리들은 그들을 체포하며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쓰촨성 당국은 스님들과 시민들을 수감하는 동안 학대하고 음식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스님은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한 쪽 눈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기자

輦(연) ∞ 창립 40주년 ∞ 幡(번)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닷집번


반야용선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